

대사습놀이, 혁신으로 명성 되찾는다

국악인의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그 명성과 권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사제도 도입과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대사습놀이 관계자와 학계, 언론인,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재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주대사습놀이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심사위원 선정 방법과 청중평가단 운영, 콘텐츠 다양화 방안, 운영개선안, 전주대사습청 건립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최 교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초발제에 나선 최동현 군산대학교 교수는 전주대사습의 위상 추락과 사유화 등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전주대사습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에서는 2~3일에 끝나는 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치르는 일 외에는 거의 한 것이 없다. 그 행사를 위해 조직을 유지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일은 낭비에 가깝다"며 "경연대회 이외에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목적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주대사습은 본래의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 전주대사습은 공중체의 판소리 축제였으며, 민간이 주도했던 행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연대회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축제 속에 경연대회가 자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방식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대사습놀이 관계자와 학계, 언론인,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재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주시, 발전방향 대토론회

최동현 군산대 교수 "대회의 전통 계승할 수 있는 행사 연중 개최·조직 개편"

손태도 판소리학회 후회장 "심사위원 현행 방식 유지 청중들에게 투표 권한 줘야"

이희병 동국대 겸임교수 청중들에게도 심사권 부여 심사 반영하는 제도 도입 제안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태도 판소리학회 후회장은 "경연대회와 관련해 언제나 수반되는 문제는 심사의 공정성이다. 또,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때는 청중심사제도 도입을 생각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청중

들이 심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경연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고, 전주에서 활동하는 경연자가 언제나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심사위원들에 의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청중들에게도 공식적인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1~3등을 투표한 후 이를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반대로,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희병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는 청중평가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제도적 보안을 전제로, 청중들에게도 심사권을 부여해 심사에 반영하는 청중평가제 도입을 제안하며 "청중심사단 200~300명이 참여함으로써 본선장에서의 관객 흥행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주대사습의 발전을 위해 전주대사습청 건립과 함께 축제형식의 기마무예, 야간 야외극장 설치, 체험학습장 설치 등 다양한 콘텐츠 수용을 통한 변화를 꾀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대토론회에 이어 이달 말 조직위원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전주대사습놀이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명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장은 "일련의 어려움들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사습놀이를 아끼는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학교발전의 올바른 방향 의견 교환

전주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김명지 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광철 협의회장과 12명의 임원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시 교육발전방향과 학교발전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명지 의장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학교발전과 교육발전방향에 적

극 협조하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교육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철 협의회장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가겠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교육의 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한지산업진흥법·활성화 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한지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지난 23일 전주한옥마을 교동아트미술관에서 김광수 국회의원과 전주한지 장인과 한지업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산업진흥법(안)과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김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지산업진흥법안과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통한지 제조시설 구축, 전통한지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지산업진흥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전통한지제조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한데 이어 한지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한지 관련분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관광택시, 시작도 못하고 시동 꺼지나

운행 노선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부서 간 손발 안맞아 출발 전부터 '빠걱'

문화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관광택시 운행 사업이 부서 간 손발이 맞지 않아 출발 전부터 '빠걱거리고 있다.'

이는 관광택시 운행 노선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관부서인 시민교통과는 나름 3시간, 5시간, 하루 코스로 나눠 운행 노선을 검토해왔다.

또한 관광객과 여행전문가 차원의 눈높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6월초 관광산업과에 협조를 의뢰했다.

하지만 업무폭주 등으로 인해 이조차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시가 당초에 계획하던 7월 초순 가동은 어렵고 오히려 성수기인 휴가철 인연이나 관광택시 운행노선이 나올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7일경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7월부터 관광택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었다.

이 택시는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관

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한옥마을을 중심의 관광 동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시는 공모 절차를 거쳐 개인택시 운전원 10명, 법인택시 운전원 10명을 선발하려했으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의 시각차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개인택시 17명, 법인택시 3명 등 총 20명의 운전원을 선발해 문화, 역사교육, 친절교육, 예절교육 등 관광택시 운행에 절대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운전원 교육(30시간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관광택시는 예약 및 배차 시 관광택시를 우선 운행하게 되며, 운행 중 전후의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맛집 안내 등 기본 관광가이드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 대로 7월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성수기인 휴가철 안에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서둘러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시스템 사용자 교육

전주시는 최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공무원과 외부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했다.

KOPSS(콤포스)란 시가 축적한 공간정보와 국토지리, 환경지리정보 등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를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공간정보를 분석해 공간계획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3차원 공간정보 분석시스템인 KOPSS를 구축하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경관분석과 입지분

석 등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KOPSS 분석결과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 축적된 DB를 최신의 공간정보로 갱신했으며, 이용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 환경을 제공해 시스템 이용률을 제고하고 있다.

이번 교육으로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치해 KOPSS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지구 선정, 지역계획지원도 등을 활용한 개발정책 결과를 도출하는 등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 실시

제도 도입 따라

전주시가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23일 덕진예술회관 강당에서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영업주 2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날 19일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평가 전문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전문

강사가 초빙돼 등급제 신청을 준비 중인 업주에게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현장평가 세부항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통해 대형음식점 및 모범업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오존·자외선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대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